

주요개념 : 대학생, 성태도

대학생의 성태도 유형에 관한 연구

김영혜* · 어응숙** · 이화자* · 최소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은 성의 개방화 시대라고 불리울 만큼(한경순과 함미영, 2000) 다양한 대중 미디어에 의한 성정보나 지식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TV나 잡지, 광고 등의 매스컴 등에서 노골화된 성적 표현은 대학생들의 성적 발달을 예전보다 앞당김과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이원구, 1989; 정동철, 1989). 근래에 와서 자주 대두되고 있는 혼전 성행동의 증가는 현대 사회의 성가치관의 혼란과 혼전임신(미혼모), 성폭력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문인옥, 1998).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의 대부분이 34개월이 지나서도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이 20세로 90년도의 22세보다 연소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미혼부의 평균 연령은 24세로 보고 되어(병원신문, 1993), 이들의 평균 연령이 대학 재학 연령임을 알 수 있다.

성태도란 사회구조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관념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와 상호 역동적으로 관계하여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면서 표현되어지는 것으로(심희정, 1999), 성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 개방에 따른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순결교육의 강조와 보수적인 기성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세금, 2001; 오혜경, 2003). 이에 반해 대학생들의 성 태도는 이전과 달리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혜경(2003)의 연구에서는 결혼 전 유산에 대해 48%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성행위에 대해 인간의 자연스러운 과정 혹은 성스럽다는 생각이 전체 대상자의 67%를 차지하였으며, 한경순과 함미영(2000)의 연구에서도 혼전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가 19.3%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에 대한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는 성문제 발생시 가정에서 부모와 의논하기보다 친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간호학 박사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시간강사, 박사과정 수료

***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교신저자 : NursingEo@hanafos.com

구와 의논하게 되며, 이는 성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인 충동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적응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리적 불안과 갈등 속에서 올바른 성의식과 성에 대한 태도를 가지지 못한 채 급변하는 성개방화 흐름 속에서 방황할 수 있다(문인옥, 1998).

한편, 대학교 시기는 발달 단계상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사회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성지식을 곧바로 성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나이이므로 성과 관련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정이나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들의 성적고민에 대해 성 상담이나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문인옥, 1998). 오혜경(2003)은 여대생의 91.2%가 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성교육 내용도 과거 생식기 중심의 해부학적 지식만이 아닌 피임, 임신, 성 행동, 성 심리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특히 이들 내용 중 피임에 대한 내용은 가장 성지식이 낮았지만 성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인혜, 한유정과 윤현숙(1996)의 연구에 의하면 성교육 경험이 없었던 대학생들도 36.5%를 차지하여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의 부재뿐만 아니라 성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잘못된 성지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대학생의 성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즉 혼전성교, 자위행위, 임신, 유산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해 개인의 견해를 물어보아 측정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박인혜 등, 1996; 오혜경, 2003). 이들 연구들에서는 성태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자들의 생각도 다양하여 도구의 항목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다른 연구와 비교하기 어렵다(김현경, 최수정, 김미영, 양경미, 임미림, 1999).

한편, 성태도 측정도구인 SAS(Sexual Attitude Scale)는 가치기준점 50점을 기준으로 성태도 유형을 측정할 수 있어 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성의 개방화 시대라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성태도 유형의 파악은 이후 성교육을 실시할 때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좀 더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인 대학생들의 성태도와 성태도 유형을 파악하여 대학교육에서 성과 관련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도울 수 있는 성교육 계획 및 실행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 2) 대상자의 성태도와 유형별 성 태도를 알아본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유형 차이를 알아본다.

3. 용어정의

- 1) 성태도 : 성태도란 인간의 성적표현에 대한 개방적 혹은 보수적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Hudson, Murphy, Nuris(1983)의 성태도(SAS: Sexual Attitude Scale)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II. 문헌 고찰

성 태도는 사회구조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관념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와 상호 역동적으로 관계하여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면서 표현되어지는 것으로(심희정, 1999), 성가치관이라는 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태도라는 것은 심리적 대상에 대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 경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성태도란 성에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 및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한경순과 함미영, 2000).

최근 각종 성 정보의 범람과 개방화로 성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데(장순복, 최연순, 김혜숙, 199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인옥(1998)의 연구에서는 키스나 진한 애무, 성교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상원(1998)이 1981년부터 1997년까지의 청소년 성의식 관련에 대한 조사에서도 혼전순결에 대한 의식이 82%에서 39%로 16년간 줄었음을 보고하여 성태도가 보수성향에서 개방적으로 변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성태도에 대한 정확한 조작화 없이 혼전순결이나 애정행위에 대한 비율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상자들의 성태도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청소년기를 발달 단계별로 분류해보면 청소년 전기는 12세에서 15세까지, 청소년 중기는 16세에서 18세, 청소년 후기는 19세에서 22세로 나눌 수 있는데(김제한, 공석영, 김충기, 1980), 성적 발달 주기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들은 청소년 후기에 속하며, 이때는 성적 발달 주기상 완성기라 할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은 발달단계상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앞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나이라는 점(이영희 등, 1997)과 대학생들의 성태도는 다양한 써클 활동이나 폭 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이 시기에 자칫 잘못된 성태도는 미혼모나 임신중절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성과 관련된 올바른 태도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인숙(1994)은 성 개방화에 따른 미혼모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들의 평균 연령이 대학 재학 연령임을 고려 해 볼 때 이들에게 올바른 성 지식을 갖게 하여 미혼모, 낙태, 강간, 원하지 않는 임신 등의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교육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성교육 내용의 불균형 및 제한성, 전문 지도자 부족, 교육자료 빈곤으로 적절히 교육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이명화, 1993), 성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80% 이상의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고(오혜경, 2003; 이인숙, 1994) 또한 성 지식 정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명희, 1999; 오혜경, 2003). 이는 대학생들의 성문제가 과거의 이성교제, 자위 행위 등에 관한 내용에서 성폭행이나 임신 가능성, 이성과의 신체적 관계에 따른 문제로 옮겨가고 있음을(김신정, 1995) 볼 때, 원하지 않는 임신방지나 피임과 같은 구체적이고 성행동적인 지식까지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태도와 성지식 및 성행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성행위나 성에 대한 언급을 하여도 수치감이나 죄의식을 덜 느끼며(윤가현, 1994),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높고(최희정, 1985), 성태도는 성행위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보고되고 있다(Miller & Olson, 1985). 최희정(1985)은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경험이 낮음을 주장하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치관, 태도 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적 적

응을 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 역할에 대한 사회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대학생 시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나이이므로 성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주거형태, 종교 등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Coleman-Kenney, 1992; 김주연, 1993; 남명희, 1999; 이은정, 1990). 성별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였으며(남명희, 1999), 월경, 유방, 음모 등 생식 생리적 내용에 대한 태도는 남학생이 더 긍정적이었고, 결혼, 임신, 성교 등 성의 발달에 따른 규범적 행위에 대한 태도도 남학생이 더 긍정적이었으며, 이혼, 혼전, 혼외 성교 등 비규범적 행위에 대한 태도에서도 여학생보다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정, 1990). 주거형태에 있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남명희(1999)의 연구에서는 자택에 사는 학생들의 성태도가 개방적인 반면, 박영신(1988)의 연구에서는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이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기독교를 믿는 학생이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에 비해 임신 경험 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도 하고(Troiden & Jendra, 1987), 무교가 성태도에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남명희, 1999). 이와 같이 성태도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들 간에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학생의 성태도 정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것은 이후 올바른 성태도 형성과 성행위에 대한 책임의식까지 함양하여 성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성지식에서 오는 갈등과 부정적인 성태도를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이후 만족한 결혼생활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면에서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3년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총 173부를 배부하였으나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질문지 12부를 제외한 161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성태도 관련 문헌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 특성 12문항, 성태도에 관한 문항 25문항으로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생의 성태도 측정은 Hudson, Murphy and Nurius (1983)의 SAS(Sexual Attitude Scale)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인간의 성적표현에 관한 보수적, 개방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 25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강하게 부인한다'에 1점, '부인한다'에 2점, '동의도 부인도 할 수 없다'에 3점, '동의한다'에 4점, '강하게 동의한다'에 5점을 부여하여 25점에서 125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이 중 문항 수 만큼(-25) 점수를 빼어 다시 100점으로 환산한다. 이 중 점수범위가 0-24점이면 성적 표현에 대한 태도가 높은 수준의 개방적 태도를 가지며, 25점에서 49점이면 낮은 수준의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며, 50점에서 74점은 낮은 수준의 보수적 태도, 75점에서 100점이면 높은 수준의 보수적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한다(Nurius & Hudson, 1988). Fisher와 Corcoran(1994)의 연구에서는 문항내적 일관성 Cronbach alpha 값이 .90이며,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김영혜

(2000)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0.7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한 후 SPSS WIN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 빈도, 평균을 사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성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유형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IV.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 대상자 161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57.1%, 여자 42.9%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은 17세부터 29세까지로서 평균 연령 19.9세로 과반수 이상이 16세에서 20세 범위에 속하였으며(66.5%), 공학계열이 가장 많았다(48.4%). 종교는 없음이 57.2%이었고, 불교가 21.7%로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90.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가족은 9.9%이었다. 형제순위는 첫째가 53.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둘째는 36%, 셋째 이상은 10.5%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이혼여부는 대부분의 대상자의 부모는 이혼을 하지 않았으며(92.5%), 거취상태는 자택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80.1% 이었고,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등에 사는 것이 19.9%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농업, 수산업 등 기타에 종사하는 경우가 37.2%이었고, 사무직(34.8%), 기능직

(21.1%), 전문직(6.8%)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있다가 44.1%, 없다가 55.9%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한달 용돈의 평균은 246,000원으로 한달 용돈이 11만원에서 20만원의 범위가 32.9%로

<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161)

특	성 구 분	실 수(%)	평균
성별	남자	92(57.1)	
	여자	69(42.9)	
연령	16-20세	107(66.5)	19.85±2.18
	21-25세	41(25.5)	
	26-30세	13(8.1)	
전공	인문사회	27(16.8)	
	자연과학	37(23.0)	
	공학	78(48.4)	
	기타(예체능)	18(11.2)	
종교	없슴	92(57.2)	
	불교	35(21.7)	
	기독교	22(13.7)	
	천주교	12(7.5)	
가족형태	핵가족	145(90.1)	
	대가족	16(9.9)	
형제순위	첫째	86(53.4)	
	둘째	58(36.0)	
	셋째 이상	17(10.5)	
부모님 이혼여부	이혼	12(7.4)	
	이혼안함	149(92.5)	
거취상태	자택	129(80.1)	
	자취 및 기타 (기숙사 등)	32(19.9)	
	아버지 직업	전문직	11(6.8)
아버지 직업	기능직	34(21.1)	
	사무직	56(34.8)	
	기타 (농업, 수산업 등)	60(37.2)	
	어머니 직업	있다	71(44.1)
어머니 직업	없다	90(55.9)	
	한달 용돈*	10만원 이하	17(10.6)
한달 용돈*	11-20만원	53(32.9)	
	21-30만원	43(26.7)	
	31만원 이상	22(13.7)	
한달 가족수입*	200만원 이하	43(26.7)	2,834,000 ±1,440,000
	201-400만원	38(23.6)	
	401만원 이상	13(8.1)	

* 무응답 빈도는 표시안함

가장 많았고, 21만원에서 30만원은 26.7%로 나타났다. 한달 가족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26.7%이었고, 201만원에서 400만원은 23.6% 이었다.

2. 대상자들의 성태도와 성태도 유형

대상자의 전체 성태도의 평균 평점은 2.82±0.33 점이었으며, 100점으로 환산한 전체 성태도의 평균은 45.50점으로 낮은 수준의 개방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수가 낮은 문항들은 '성은 오로지 젊은이들만을 위하여 존재한다'(1.80±0.66),

'나는 성교육이 가정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92±0.70),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성 문제 혹은 성적인 일을 논의해선 안된다'(2.01±0.70) 등이었고, 점수가 높은 문항은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 간에 충분한 성적 규제가 없다고 생각한다'(3.70±0.73), '나는 요즘 십대에게 너무 많은 성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3.61±0.87), '오늘날 영화가 성적으로 너무 노골적이다'(3.57±0.89) 순으로 나타났다.

가치기준점 50점을 중심으로 대상자들의 성태도를 개방형과 보수형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개방적 성태도는 67.1% 이었고, 보수적 성태도는

<표 2> 대상자들의 성태도 정도

내 용	평균±표준편차
성은 오로지 젊은이들만을 위하여 존재한다	1.80±0.66
나는 성 교육이 가정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2±0.70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성 문제 혹은 성적인 일을 논의해선 안 된다	2.01±0.70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많은 사람들은 성행위를 해선 안 된다	2.02±0.79
나이가 든 사람(노인들)들은 성교를 할 필요가 없다	2.04±0.79
사람들은 자위 행위를 해선 안 된다	2.23±0.76
결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성교육을 해야한다	2.25±1.03
동성애에 너무 많은 사회적 승인이 주어져 있다	2.61±0.90
나는 적절한 성행위의 유일한 방법은 성교라고 생각한다	2.68±0.86
혼전 성교가 부패한 사회적 질서의 지표가 될 수 있다	2.72±1.08
지나친 성적 패팅(애무)은 말려야 한다	2.78±0.92
나는 성은 결혼을 위해 유보되어야(늦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80±0.89
서로 동의하는 어른들간의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있어선 안 된다*	2.96±0.93
서로 동의하는 두 어른이 성 행위를 하든 말든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2.96±1.01
성은 출산과 같은 생식 활동에 기여해야 한다	2.99±0.89
혼외 정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나쁘다	3.03±1.14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성적 정보가 주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3.20±1.12
요즘 TV에 섹스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온다	3.27±0.88
외설적인 포르노가 우리 주변 즉 책방(서점)으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3.25±0.91
나는 성적 자유가 증가함으로써 한국의 가정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	3.30±0.90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性に 탐닉한다고 생각한다	3.37±0.82
나는 요즘 어른들에게 너무 많은 성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3.42±0.75
오늘날 영화가 성적으로 너무 노골적이다	3.57±0.89
나는 요즘 십대에게 너무 많은 성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3.61±0.87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간에 충분한 성적 규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3.70±0.73
전체 평점	2.82±0.33

전체평균 M±SD 45.50±8.25

* 역문항

32.9%로 보수적인 성태도보다 개방적 성태도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표 3 참조>.

3. 대상자들의 일반적,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태도 유형 차이

<표 3> 대상자들의 성태도 유형 (N=161)

성 태 도 유 형	범 위	N(%)
낮은 수준의 개방적 성태도	0 - 24점	2(1.2)
높은 수준의 개방적 성태도	25 - 49점	106(65.8)
낮은 수준의 보수적 성태도	50 - 74점	53(32.9)
높은 수준의 보수적 성태도	75 - 100점	0(0.0)

<표 4>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유형 차이 (N=161)

특성	구분	개방형 n(%)	보수형 n(%)	계 n(%)	χ^2
성별	남	65(60.2)	27(50.9)	92(57.1)	1.240
	여	43(39.8)	26(49.1)	69(42.9)	
연령	16-20세	66(61.1)	41(77.4)	107(66.5)	16.196*
	21-25세	37(34.3)	4(7.5)	41(25.5)	
	26-30세	5(4.6)	8(15.1)	13(8.1)	
전공	인문사회	16(15.0)	11(20.8)	27(16.9)	6.393
	자연과학	30(28.0)	7(13.2)	37(23.1)	
	공학	52(48.6)	26(49.1)	78(48.8)	
	기타(예체능)	9(5.6)	9(17.0)	18(11.3)	
종교	없슴	65(60.2)	27(50.9)	92(57.1)	5.567
	불교	24(22.2)	11(20.8)	35(21.7)	
	기독교	10(9.3)	12(22.6)	22(13.7)	
	천주교	9(8.3)	3(5.7)	12(7.5)	
가족형태	핵가족	94(87.0)	51(96.2)	145(90.1)	3.354
	대가족	14(13.0)	2(3.8)	16(9.9)	
형제순위	첫째	59(54.6)	27(50.9)	86(53.4)	0.616
	둘째	39(36.1)	19(35.8)	58(36.0)	
	셋째 이상	10(9.3)	7(13.2)	17(10.6)	
부모님 이혼여부	이혼	9(8.3)	1(1.9)	10(6.2)	2.536
	이혼안함	99(91.7)	52(98.1)	151(93.8)	
거취상태	자택	86(79.6)	43(81.1)	129(80.1)	0.050
	기타	22(20.4)	10(18.9)	32(19.9)	
아버지 직업	전문직	6(5.7)	5(9.4)	11(6.9)	1.401
	기능직	24(22.6)	10(18.9)	34(21.4)	
	사무직	39(36.8)	17(32.1)	56(35.2)	
	기타(농업, 수산업 등)	37(34.9)	21(39.6)	58(36.5)	
어머니 직업	있다	53(49.1)	18(34.0)	71(44.1)	3.293
	없다	55(50.9)	35(66.0)	90(55.9)	
한달 용돈	10만원 이하	9(9.8)	8(18.6)	17(12.6)	2.333
	11-20만원	36(39.1)	17(39.5)	53(39.3)	
	21-30만원	31(33.7)	12(27.9)	43(31.9)	
	31만원 이상	16(17.4)	6(14.0)	22(16.3)	
한달 가족수입	200만원 이하	31(47.0)	12(42.9)	43(45.7)	0.137
	201-400만원	26(39.4)	12(42.9)	38(40.4)	
	401만원 이상	9(13.6)	4(14.3)	13(13.8)	

* p<.05

대상자들의 성태도를 개방형과 보수형으로 구분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차이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 성태도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p < .05$). 16-20세의 연령은 개방형이 61.1%, 보수형이 77.4%로 보수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1-25세에는 개방형이 34.3%, 보수형이 7.5%로 개방적 성태도가 높았으며, 26-30세는 개방형이 4.6%, 보수형이 15.1%로 보수형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chi^2 = 16.196$, $p < .001$).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전공영역, 가족형태, 어머니 직업 등도 성태도 유형에 비교적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을 살펴보면 전공영역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은 개방적 태도가 15.0%, 보수적 태도가 20.8%로 보수적 태도가 높았고,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개방적 태도가 28.0%, 보수적 태도가 13.2%로 개방적 태도가 높았으며, 공학계열에서는 개방적 태도가 48.6%, 보수적 태도가 49.1%로 보수적 태도가 높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에서 개방적 태도가 87.0%, 보수적 태도가 96.2%로 보수적 태도가 높았으며, 대가족에서는 개방적 태도가 13.0%, 보수적 태도가 3.8%로 개방적 태도가 높았다. 어머니 직업 유무에 따른 성태도 유형 차이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개방적 성태도는 49.1%, 보수적 성태도는 34.0%로써 개방적 성태도가 높았고, 직업이 없는 경우 개방적 성태도가 50.9%, 보수적 성태도가 66.0%로 보수적 성태도가 높았다.

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전체 대상자의 성태도 평균은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45.50점으로 낮은 수준의 개방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기준점 50

점을 중심으로 대상자들의 성태도를 개방형과 보수형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개방적 성태도는 67.1% 이었고, 보수적 성태도는 32.9%로 보수적인 성태도보다 개방적 성태도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결과는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태도를 조사한 김영혜 등(2003)의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로 나타났는데, 여자 청소년의 성태도는 전체 평점이 51.39점으로 낮은 보수적 태도를 보였고, 개방적 성태도는 34.6%, 보수적 성태도는 65.4%로 보수적 성태도를 가진 집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자의 차이와 남녀의 성에 따라 다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문화적으로 서구사회보다 고등학생의 성에 관해 많은 법적, 사회적 규제를 가하는 반면 대학생 시기가 되면 이러한 규제들이 많이 완화된다. 따라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태도는 차이가 나리라 판단되지만, 여자 고등학생만을 포함한 연구와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이후 남자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국외의 경우 Nurius and Hudson(1988)이 성인 689명을 대상으로 성태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26.2점으로 낮은 수준의 개방적 태도를 보여 본 연구대상자의 성태도와 같은 정도에 속하였지만, 평점에 있어서는 이들의 연구는 거의 높은 수준의 개방적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문화와 성태도에 국외의 대상자들이 좀 더 개방적임을 알 수 있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점수가 낮은 문항들은 '성은 오로지 젊은이들만을 위하여 존재한다'(1.80±0.66), '나는 성교육이 가정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92±0.70),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성 문제 혹은 성적인 일을 논의해선 안된다'(2.01±0.70),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많은 사람들은 성행위를

해선 안된다(2.02±0.79), '나이가 든 사람(노인들)들은 성교를 할 필요가 없다(2.04±0.79) 등이었고, 점수가 높은 문항은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간에 충분한 성적 규제가 없다고 생각한다'(3.70±0.73), '나는 요즘 십대에게 너무 많은 성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3.61±0.87), '오늘날 영화가 성적으로 너무 노골적이다(3.57±0.89), '나는 요즘 어른들에게 너무 많은 성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3.42±0.75),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성에 탐닉한다고 생각한다'(3.37±0.8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서 보시다시피 과거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성에 대한 생각이 변화됨을 알 수 있으며, 성교육이나 성문제 의논이 가정 밖의 사회로 많이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들은 요즘 국내에서 성문화나 성개방화가 범람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유형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수준으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난 항목은 연령이었다. 연령은 16-20세의 연령은 개방형이 61.1%, 보수형이 77.4%로 보수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1-25세에는 개방형이 34.3%, 보수형이 7.5%로 개방적 성태도가 높았으며, 26-30세는 개방형이 4.6%, 보수형이 15.1%로 보수형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chi^2=16.196$, $p<.001$). 이는 오혜경(2003)의 연구에서 1학년이 2학년에 비해 결혼 전 유산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 이인숙(1994)은 대학생의 성교육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성병, 강간, 임신, 유산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더불어 상황에 따른 적당한 의사 결정 능력 및 바람직한 성태도를 지니게 하여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전공영역에서는 자연과학 계열에서 개방적 태도가 높았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들이 개방적 성태도를 지녔는가에 대해서는 본 연구로서는 알 수 없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에서 개방적 태도가 87.0%, 보수적 태도가 96.2%로 보수적 태도가 높았으며, 대가족에서는 개방적 태도가 13.0%, 보수적 태도가 3.8%로 개방적 태도가 높았다. 이들 결과는 일반적으로 핵가족 형태에서 개방적 태도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 유무에 따른 성태도 유형 차이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개방적 성태도는 49.1%, 보수적 성태도는 34.0%로써 개방적 성태도가 높았고, 직업이 없는 경우 개방적 성태도가 50.9%, 보수적 성태도가 66.0%로 보수적 성태도가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는 대인관계의 폭이 넓고 각종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아지므로 가정에만 있는 어머니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 종교가 성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달리(남명희, 1999; 오혜경, 2003) 본 연구에서는 종교와 성태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오혜경(2003)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혼전 임신의 책임(남성), 결혼전 유산, 결혼 후 유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남명희(1999)의 연구에서도 종교가 없는 경우 종교가 있는 것보다 성태도에 개방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성태도 도구의 차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대학생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좀 더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태도를 파악함으로써 대

학생의 건강한 성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재방안의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5월 19일부터 5월 24일 까지 1개 대학에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도구는 Hudson, Murphy와 Nurius(1983)의 SAS(Sexual Attitude Scale)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평균 연령 19.9세 이었고 공학계열이 가장 많았다. 종교는 과반수가 없었으며, 대부분이 핵가족 형태이었고,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등에 사는 학생은 19.9%이었다.
2. 대상자들의 성태도의 전체 평균은 100점으로 환산한 경우 45.50점으로 낮은 수준의 개방적 태도를 보였고, 가치기준점 50점을 중심으로 대상자들의 성태도 유형을 구분한 결과 개방적 성태도는 67.1%, 보수적 성태도는 32.9%로 개방적 성태도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유형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즉, 연령이 어릴수록 개방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태도는 낮은 수준의 개방적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고, 개방적인 성태도가 보수적인 성태도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태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좀 더 분석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신정 (1995). 대구시내 일부 여대생의 성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60(4), 345-353.
- 김영혜 (2000). 한국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한 시청각프로그램이 성역할정체감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0(6), 1556-1568.
- 김영혜, 어용숙, 이화자 (2003). 여자 청소년의 성태도에 관한 연구(미발간).
- 김제한, 공석영, 김충기 (1980). 청년 발달 심리학. 서울: 세광공사.
- 김주연 (1993).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성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 최수정, 김미영, 양경미, 임미림 (1999). 성지식·성태도에 관한 우리 나라 연구내용 분석 - 중·고·대학생을 중심으로 -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6(1), 167-185.
- 남명희 (1999).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1), 239-251.
- 문인옥 (1998).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3(1), 149-163.
- 박영신 (1988). 일부 사범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3(6), 393-413.
- 박인혜, 한유정, 윤현숙 (1996). 남녀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 광주 시내 일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9(1), 99-108.
- 병원신문 (1993). 한국부인회 실태관련 세미나, 631, 14.
- 심희정 (1999). 청소년 성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금 (2001). 대학생의 성 지식 수준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경 (2003).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2), 163-178.
- 윤가현 (1994). 성 혁명의 진행과 종말. 지성과 패기, 9, 10월호, 92-95.
- 이명화 (1993).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 이영휘,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순남, 한유미, 황윤정(1997).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인천시 일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7(1), 26-35.
- 이원구(1989). 국문학교 성교육의 방향 탐색. 수도교육, 114호, 22-29.
- 이은정(1990). 고교생과 고교생 학부모의 성지식, 태도, 성교육 요구 시기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인숙(1994).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순복, 최연순, 김혜숙 (1992). 미혼 근로 여성의 성문제 분석. 최신의학, 35(8), 103-112.
- 정동철(1989). 성교육의 새로운 방향. 수도교육, 114호, 7-21.
- 최희정 (1985).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성에 대한 경험, 지식 및 태도 조사 연구. 중앙의학, 49(2), 93-102.
- 한경순, 함미영 (2000).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 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15-131.
- Coleman-Kenny, K. R. (1992). The influence of selected family background variables in the reported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of traditional age college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in southeastern pennsylvania.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Fisher, J., & Corcoran, K.(1994).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2nd Edition). A division of Macmillan, Inc. New York, 566-567.
- Hudson, W. W., Murphy, G. J., & Nurius, P. A.(1983). A short-form scale to measure liberal vs conservative orientations toward human sexual expressio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19, 258-271.
- Miller, B. C., & Olson, T. D.(1985).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in relation to background and contextual factor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4, 191-200.
- Nurius, P. S., & Hudson, W. W.(1988). Sexual activity and preference : Six quantifiable dimension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4, 30-46.
- Troiden, R. R., & Jendrek, M. P.(1987). Does sexual ideology correlate with level of sexual experience? Assess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A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3(2), 256-261.

ABSTRACT

Key Words : College student, Sexual attitude

A Study of Sexual Attitude of Korean College Students

Kim, Young Hae* • Eo, Yong Sook* • Lee, Hwa Za* • Choi, So You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sexual attitude in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sex education program. **Method** :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161 students in the college students and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19th to 31th May, 2003.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S. **Result:** The level of sexual attitude was low level of liberal. Sixty seven percent of college

students in the study perceived liberal sexual attitude based on the cut-point suggested by Hudson et al.(198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xual attitude in the age. **Conclusion:** In conclusions, the sexu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change liberal, and then it is required to specific and practicable sex education programs.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NursingEo@hanafos.com